

삼성코닝, 5세대 박형 기판유리 공급

LCD 경량화에 초점 ... 두께 줄여 비용·에너지 절감에 공급망 단순화

삼성코닝정밀소재는 휴대용 LCD(Liquid Crystal Display) 기기의 경량화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박형 기판유리를 공급한다.

삼성코닝이 공급하는 <EAGLE XG Slim>은 5세대(Gen5) 크기에 두께가 0.4mm로 2010년 국내에서 양산·공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EAGLE XG Slim>은 삼성코닝의 퓨전공법을 사용해 기판유리 자체의 두께를 줄임으로써 비용절감과 공급망 단순화, 에너지 소비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삼성코닝정밀소재는 Corning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앞으로 0.4mm뿐만 아니라 휴대용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두께 0.3mm 제품과 LCD TV 등 대형 디스플레이를 위한 5세대 이상 제품 공급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삼성코닝 이현식 사장은 “<EAGLE XG>로 대표되는 친환경성에 새로운 박형 기판 라인을 더해 LCD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6/09>